

‘보온병’ ‘자연산’... 흔들리는 與 리더십

안상수 잇단 실언... 野 ‘성희룡당’ 사퇴 촉구 민심자극 당내 우려 확산 여당내에서도 비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잇단 실언 파동으로 취임 5개월여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연평도 방문 시 ‘보온병 포탄’ 발언에 이어 22일 “요즘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일반 시민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 대표는 22일 세월 민생 홍보 차 중증 장애아동 요양시설을 방문한 뒤 동행한 여성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요즘 룸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며 성형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에 비유하는 발언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연예인 1명에게 들어가는 성형 비용만 1년에 2억~3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성형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룸에 가면 ‘자연산’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나경원 최고위원의 1일 보좌관 체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시설을 방문했던 유명 걸그룹 멤버를 거론하면서 “(걸그룹) 얼굴을 다 구분 못 하겠다”며 “요즘은 얼굴 뿐만 아니라 전신성형을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동석한 원희목 대표 비서실장도 압구정동 일대 성형병원 및 여성 탈린트의 성형문화 등을 언급하면서 “압구정에 가면 다 똑같은 코드. 같은 공

장에서 만든 것이라서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 대표 발언은 여성비하 발언의 결정판이자 대한민국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할 줄 아는 것이 낱치기와 성희롱밖에 없느냐”며 “양식도 없는 안 대표는 정계를 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성 전 대표, 정동준 전 대표에 이어 안상수 현 대표도 성

희롱 발언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성희롱당’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었다”며 “안 대표는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자리에 동석했던 한나라당 안현환 대변인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과 환담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였고, 성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서로 알고 있는 극히 사적인 얘기를 주고 받은 것이었다”며 “여성을 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었고, 의도와 다르게 부적절하게 비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이 같은 안 대표의 실언이 알려지자 당내 수도권 의원 대부분은 격앙했다. 가뜰스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와 핵심예산 누락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안 대표의 설화(舌禍)로 또 다시 민심을 자극하게 됐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일부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당장 사퇴론이 불거질 가능성은 작지만 일단 현 지도부의 리더십 붕괴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이번 실언으로 안 대표는 ‘식물대표’가 된 게 아니냐”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초선 모임인 ‘민본21’ 주광덕 의원은 “현 지도부의 지도력에 의문이 많았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향후 선거에서 유세 나오는 것을 바라는 의원들이 없을 것”이라며 “이 지도부 체제로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정문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김유정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과감하게 대권 도전할 것”

대전서 기자간담회

지난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정배의 깃발”을 들고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대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총선 개혁공청회’ 참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당내 누군

가가) 대권 도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민주당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권에 과감하게 도전할 생각”이라고 말해,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원활한 정국운영 ▲확실한 대안과 비전, 정책 제시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당 개혁특별위원회의 치밀한 활동 ▲야권 통합 등을 꼽았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임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는 참여정부 때부터 ‘국가균형발전’이란 확고한 비전을 갖고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민주당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김태일 영남대 교수(주체 민주당 개혁의 방향과 과제) 등이 주제발표를 했으



며 박정현 대전시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권은 부자만 생각하는 ‘빈수레 복지”

민주, ‘한나라 복지국가론’ 연일 파상 공세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 대선 화두인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서자 민주당이 ‘부자 정당의 빈수레 복지’라고 평가절하 하는 등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진보 진영의 고유 영역인 ‘복지’ 분야를 한나라당에 잠식당한다면 오는 2012년 대선에서 서민·중산층 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빈수레형 복지”라고 비판한 데 이어 2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한 데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년도 복지 예산이 역대 최고이고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주 잘못된 말씀”이라며 “그 증가액은 실질적 복지예산이 아닌 법정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서민예산을 완전히 무시한 낱치기 예산을 갖고 아직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며 “너무나도 부자만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이 마치 복지국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예산 대비 복지비 비율은 2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48%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일반 처리에 반발해 2주째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방학 기간동안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도시락을 만드는 총복 청주 소재 사회적 기업을 찾아 직접 도시락을 만들며 ‘복지행보’에 가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는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의 고유 영역이지만 최근 한나라당이 중도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복지 및 서민 분야를 잠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나름대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북정책 당내 조율 필요”

한나라 나경원·서병수 강조 지도부 내부 충돌은 여전

한나라당 나경원·서병수 최고위원이 23일 대북정책과 관련한 당내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두언·남경필 의원과 이윤성·이경재 의원 등이 대북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당에서 정돈되지 않은 의견이 나온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

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또 하나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이 언젠가는 긴장완화와 같이 가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대북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제되고 정부와도 상당히 논의가 된 끝에 이야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며 “최고위원회의는 신중한 문제제기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이 제대로 설명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도부 간 의견 차이는 이날도 계속됐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햇볕정책이 성과가 있었다”는

남경필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북한은 지난 10년간 퍼준 물자로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 시대라고 할 수 있느냐”며 “햇볕정책은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평화시대를 낳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날 대북정책 기초변화를 촉구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대북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기고문은 워싱턴 정가나 동북아 정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읽는 글”이라며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관 성적표 처음 나왔다

靑 여론조사… 최경환 1위 맹형규 2위

청와대가 지난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관의 정책 수행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정책홍보비서관실에서 전국 성인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장관들의 정책수행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5점 만점에 3.1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의 순으로 정책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

출액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따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주한 점이 일반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맹형규, 윤증현 장관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장관 인지도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2.3%로 가장 높았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59.4%), 맹형규(45.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39.5%), 진수희(38.2%) 등의 순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

노래하며 춤추는 뮤직홀
“카라”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특별 할인합니다!!
(뮤직시스템 인테리어 최신시설완비)

단체예약 100명 가능!!
노래방 대형룸4개

동구 대인동 우체국 신청사 인근
예약문의 | 010-6727-3966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안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뺄지는데 거기에서 흔들며 떨어지는 찰랑거리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는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재한데 키는 1m50이 되며 섹시하니 꿈인지 생인지 헷갈린다. 본능적인 성욕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범죄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폭발로 불타가 난다.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가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사 이 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 | 문 | 방 | 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집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